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Risk-based Supervision)’를 미래의 금융감독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2006년 리스크 평가체계(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RAAS), 2007년 위험기준 자본(Risk-based Capital; RBC)제도의 도입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전자가 보험사의 전체적인 리스크 노출 정도와 통제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보험사가 리스크에 노출된 정도를 계량화하여 보험사가 마땅히 보유해야 할 경제적 자본 또는 리스크 자본(economic capital or risk capital)을 기준으로 삼아 보험사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본(available capital)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려는 제도이다.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자본요건이 해당 금융산업 또는 금융기관에 내재된 리스크(underlying risks)와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이 오늘날 금융감독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은행권 Basel 협약의 변화는 보험산업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현재 유럽에서 추진되고 있는 Solvency II는 Basel II를 보험산업에도 적용하려는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Basel II의 주요한 변화는 시장과 신용리스크의 측정은 물론 특정 금융기관의 경영관리수준을 좌우하는 운영리스크 측정으로 대상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보험권의 RAAS 등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손해보험시장에 맞는 RBC 모형을 설계하고, 모형의 운영은 물론 RAAS 등 관련 제도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손해보험시장 RBC 제도의 도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를 둘러싼 국내 선행 연구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황선영 등(2001)은 현행 EU식 지급여력제도에 대하여 RBC 모형의 리스크 계수에 해당하는 지급여력기준금액 계수를 손해보험 종목별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자동차보험과 해상보험 및 일부 특종보험의 계수는 종목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계수가 지나치게 높은 반면, 화재보험 등은 오히려 현행 계수가 더 낮음을 보임으로써 EU식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계수의 보험종목별 차별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EU식 지급여력제도의 대안으로서 RBC 모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봉주·이근창(2002)은 리스크를 보험, 예정이율, 자산운용(가격변동 및 신용), 경영관리의 4개 범주로 나누어 1998년 기준의 종목별로 세분화된 보험리스크 계수와 미국과 일본의 시장 및 신용 리스크를 그대로 또는 일부 조정하여 원용하였다. 그 결과 200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출한 RBC는 EU식 지급여력기준금액보다 크게 나왔고, 리스크 분포에서도 자산리스크가 60% 이상을 차지해 요구자본량의 증가 원인을 자산리스크를 추가로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향후 RBC 제도의 도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정중영(2004)은 손해보험사의 리스크를 보험, 예정이율, 자산운용, 경영관리에 재보험 리스크를 추가로 구분하고, 이봉주·이근창(2002)의 연구와 유사하게 리스크 계수들을 선정하여 2002년 데이터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이봉주·이근창(2002)과 동일하게 RBC가 현행 지급여력기준금액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나, 리스크 분포에서는 자산리스크가 부각됐던 이봉주·이근창(2002)의 연구와 달리 미국 손해보험과 유사하게 보험리스크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자산운용리스크 순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각 리스크별 리스크 계수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경험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RBC 계수의 산출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류건식 등(2002)이 일본 RBC 모형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보험시장의 실제 RBC 계수를 추정한 연구 사례가 있지만, 이는 생명보험에 관한 것이었다¹⁾.

한편, 해외에서는 RBC 제도가 보험사의 부실을 사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효성 분석이 RBC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각 리스크 계수 산출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로서 Cummins 등(1999)은 RBC 비율의 부실 예측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IRIS, FAST 등과 함께 분석할 경우 보험사 부실예측 능력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자에 해당되는 대표적 연구로서 Feldblum(1996)은 1994년 도입된 손해보험 RBC 제도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는 논문으로 미국 손해보험 RBC 제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있으며, 각 리스크 계수별 특성에 대하여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1)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의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 도입방안 연구」(1997, mimeograph)가 보험종목별 리스크 계수를 산출한 바 있으며,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서 그 결과가 인용된 바 있다.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본 연구는 RBC 모형의 설계와 이를 포함한 각종 제도적 도입 방안
에 대한 논의를 연구의 범위로 한다. 그러나 RBC 제도를 도입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의 하나인 리스크 노출지표(risk exposure indicators
or risk bearers)로서의 자산과 부채의 가치 측정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
서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만 RBC 제도 도입방
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자본기준과 함께 공정가치회계 등의 국제기
준 제정 등이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 I 장과 제 II 장에서는 감독당국의 지급여력제도에서 나타난 규
제자본(regulatory capital)과 경제적 자본의 개념적 동질성과 경제적 자본
의 산출 방법론을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리스크 기간(risk horizon), 신용
등급기준(credit rating standard)의 설정 또는 신뢰구간(confidence level)의
선정, 리스크에 노출된 가치(value) 등 리스크 자본의 산출에 필요한 요
소들과 구체적인 산출 방법론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 III 장에서는 손해보험사에 대한 현행 EU식 고정비율방식(fixed ratio
approach)이 아닌 RBC식 요소별 접근 방식(factor-based approach)을 경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설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손해보험에서 직면하게
되는 각종 리스크들을 시장, 신용, 보험 등 주요 리스크 범주별로 분류
하고, 제 II 장의 산출 방법론을 토대로 1994년부터 2003년까지의 10개년
동안의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산과 부채의 해당 리스크 량을 추정
하는 데 필요한 리스크 계수들(risk multipliers)을 산출하고, 이들을 결합
한 RBC 모형(RBC formula)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IV 장에서는
RBC 도입의 목적과 모형 설계상의 각종 가정들, 현행 제도와의 비교,
재무건전성 감독의 실효성 제고, 리스크 감독 플랜, RBC의 한계라는
측면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